

<서 평 2>

송화섭 교수의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이정덕*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전북학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해마다 4~5권의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도 해마다 1~2권씩 발간하고, 전북을 연구하는 논문들을 실는 『전북학연구』 학술지도 매년 2권씩 발간해왔다. 전북학연구센터가 전북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이들의 결과물을 계속 출간하여 전북학에 대한 연구와 집적이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화섭 교수의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는 부안과 고창 해안지역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문물과 해양문화를 문명교류와 종교 등과 연결하여 정리한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바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국가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다. 바다를 통한 외국과의 교류는 부산의 왜관에서 일본과의 교류만 행해졌다. 고려시대까지 전북 서해안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로 이어졌던 해양문명교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전북 서해안을 거쳐 이루어졌던 다양한 문명교류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전북이 적극적인 문명교류의 현상이었던 기억도 점차 사라졌다. 송화섭 교수의 책은 고창과 부안을 중심으로 바다를 통한 문명교류와 사상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하여 전북이 그동안 얼마나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이어왔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은 8장으로 되어 있으며 장마다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장-청동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mail: jdyi@jbnu.ac.kr

기 시대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고인돌, 2장-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변산반도의 해양신앙, 3장-마한백제 시대 동진강 수계권의 수로해상 교통, 4장-선운산 검단선사와 줄포만의 자염, 5장-후백제시대 해양도시 고부와 줄포만의 해상교통, 6장-줄포만에 돌배가 들어오다, 7장-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관음신앙, 8장-변산반도의 돌집대와 해양문화.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현대의 민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서라기보다는 고창과 부안의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여 고창과 부안의 해양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럼 각 장별로 살펴보자.

1장은 세계 최대의 고인돌 집적인 한국, 그 중에서도 특히 고창의 고인돌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에서 고인돌은 대체로 해안 지역이나 하천유역에 분포하는데 특히 고창(전국의 63%)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고인돌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유적으로, 프랑스 브르타뉴에 약 6000년 전에 세워진 3000개 정도의 거석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천문과 관련된 신앙 때문에 세워진 것으로 믿어진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는 5500년 전에 아리안족들이 고인돌을 무덤으로 축조하였고 인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인돌이 보인다.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서는 한반도에서 보이는 형식과 비슷한 고인돌들이 보이며 대만, 일본, 중국에서도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도 고인돌은 해안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러한 루트와 현재까지 행해지는 인도네시아의 고인돌의 한국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청동기 시대 벵농사, 내세관, 조상숭배가 동남아시아에서 바닷길을 따라 한반도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창 고인돌은 줄포만을 거쳐 주진천을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반월형 석도 등이 발굴되어 이를 통해 밭벼를 재배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지금도 고인돌을 만드는 인도네시아 숨바섬 사람들이 반월형 석도와 갈돌이나 목절구 등을 사용하고 있고 대청과 마루 등이 동남아 고상식가옥과 유사하여, 고인돌 시대의 한반도 벵농사문화와 조상숭배가 남방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에서 고인돌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고인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전북 고인돌에 대한 정리 및 의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인돌의 흐름과 전북에서 특히 고인돌이 집중해있는 고창 고인돌의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중들을 위한 책이라 엄격한 학술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고인돌과 관련하여 과연 근거가 충분히 있을까 하는 과감한 주장들도 눈에 띄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몽골, 러시아에서는 지질과 강수량과 기후 여건으로 벼농사가 어려워지며, 고인들이 분포하지 않으며, 조상숭배의 관행도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벼농사와 고인돌과 조상숭배는 한국인의 문화유전자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 속해 있음을 말해주는 문화 코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생활문화는 동남아시아 남방계 도작문화권에 문화적 근원성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30쪽).” 반면 한반도 북부나 만주에도 고인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으며 벼농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조상숭배 관행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현대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벼의 기원도 동남아보다 양자강유역이 더 유력하다. 보통 한국에로의 벼 전파도 산둥반도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만주를 거쳤다는 가설이나 남방전파설도 있다. 한반도 사람들의 주류가 9000년 전쯤 북방농경민이 남하한 것이라는 설도 유력하게 제시되어 북방은 유목, 남방은 농경이라는 구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인돌과 조상숭배가 만주를 거쳐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다.

2장은 전북에서 가장 흥미로운 문명교류의 현장인 죽막동을 다루고 있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부안 격포해수욕장 인근의 수성당에 있다. 마한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해양제사유적지이며 현재도 해신에게 굿을 하고 제를 올리고 있다. 바다로 튀어 나와 있어 당시의 해안을 따라 해양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국제해로의 중요한 해양제사터로 생각된다. 특히 아직 백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여 마한 소국들이 존재하던 400년대에서 500년대의 유물이 가장 많고 이때의 문명교류활동이 매우 흥미롭다. 백제에서 남중국, 일본, 가야 등과 교류를 할 때도 사용하고, 마한이나 가야도 직접 교류에 참여하면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제모조품은 해신에게 바치는 공헌용으로 일본 대마도와 혼슈 사이의 섬에 있는 오키노시마 해양제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매우 흡사하다. 남중국의 4~500년대 청자편이나 가야의 것으로 보이는 철기유물도 출토되었다. 죽막동 해변굴의 형태는 남중국 항주 앞 주산군도 보타낙가산 조음동의 해식동굴과 닮은꼴이다. 백제 승려 발정이 500년대 초에 남중국 양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530년경 귀국할 때 관음도실에 들러 관음보살 응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 등을 언급하고, 이미 백제시대에 백제와 항해가 빈번한 항주만 주산군도 보타산의 관음보살응험기와 유사성이 있어 관세음보살의 화신신앙이 백제로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보타산에는 거구인 남해관음이 세 발자국을 건너뛰면서 1,000개의 섬을 세어본다는 전설이 있는데,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머니 해양신화도 이와 유사하여, 관음신앙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남인도 포탈낙가산(Potalak)의 관음신앙도 비슷하여, 남인도의 남해관음신앙이 주산군도 보타낙가산을 경유하여 남중국과 백제 사이의 문물교류가 활발했던 500년대 후반 부안 죽막동까지 건너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줄포만과 변산반도에 항해보호신앙과 관련하는 관음도량과 관음연기설화가 전해오고, 보타산 계통의 석주설화가 줄포만에 전해져 이들은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내용이다. 특히 죽막동과 가까운 고창군 공음면에서 400년대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무덤인 거대 전방후원분을 찾아냈다. 이는 죽막동에서 나타난 400년대 일본유물이 많다는 점과 관련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3장은 동진강 수계권이 마한·백제시대에 어떻게 개발되어 백제에 중추적인 농산물 공급지로 작동하였고 결국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침략한 다음 나당연합군과 왜군이 전투를 벌인 곳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백제시대 동진강 수계권에 커다란 저수지인 벽골제와 늘제를 축조하여 농업생산기지로 사용하였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백산으로 모였다. 마한·백제시대에는 고부 지역의 물산이 고부천을 통해서 백산에 내려오고, 정읍, 태인 지역의 물산은 동진강, 정읍천을 따라 백산성 아래에 집하되어 회포에서 선박에 선적하여 부여, 공주, 한성 등으로 수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산성은 마한·백제시대에 늘제와 벽골제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모이고 거래되는 곳으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백산촌(白(山)村)을 끼고 흐르는 백촌강(白(村)江)을 고부천으로 보면서, 백제부흥운동 당시 백제·왜 연합군과 나당연합군이 대전투를 벌일 정도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흥미로운 여러 주장을 하며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큼 충분한 근거는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장은 줄포만의 자염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소금은 대체로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햇빛에 건조시켜 만드는데, 특이하게도 줄포만에서는 바닷물을 가마에 넣고 끓여서 소금(자염)을 만들어왔다. 줄포만에서 자염 생산은 검단선사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고, 자염을 선운사의 보은염으로 바쳤다는 전설이 내려와 이를 설명하고, 줄포만 검당포 일대에서 자염을 생산하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이나 지금도 자염을 만드는 기술이 사등마을(검단리)에서 전해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염의 발상지는 줄포만 검당포 일대라는 점을 각종 기록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백제시대 고부가 동진강의 수로교통을 이용하였지만 통일시대 줄포만은 산동성 봉래로 향하는 황해중부 횡단항로와 절강성 영파로 향하는 황해남부 사단항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줄포만

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후백제는 대외적인 해상 교류와 국가적 교역망을 구축을 위하여 줄포만을 국제항구로 발전시켰고, 924년 정진대사가 당 유학 20년 만에 줄포만 제안포로 귀국했다. 후백제는 서해의 해상권 장악과 고부의 해양 지리적 입지와 전략적 지역 가치를 고려하여 중방성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고사부리성을 영주성(瀛州城)으로 재활용하였다. 이는 후백제에서 줄포만 항구들이 지니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6장은 줄포만의 돌배(石舟)설화를 다루고 있다. 줄포만 죽도에 당도한 돌배를 대참사의 의운화상이 맞이하여 대참사에 모시게 되고, 내소사 앞 해안가 석포리에 표착한 석주를 혜구두타가 맞이하여 석주에 실린 관음상을 변산의 실상사로 옮겨 봉안한다는 설화이다. 이 설화는 석주가 불연(佛緣)의 땅을 찾아 해안의 포구에 당도하며 배안에는 불상, 불경, 불탑 등을 전달해준다는 내용이다. 저자는 항주만 앞 주산군도 보타산에 석주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하여 이러한 설화가 바닷길 항로를 따라 줄포만에 이른 것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줄포만의 돌배는 주산군도 보타산에서 온 관음선(觀音船)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상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7장에서는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관음 신앙을 다루고 있다. 2장에서 죽막동의 해신은 항주만 보타도의 해양관음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6장에서는 석주가 보타도에서 줄포만까지 관음상을 실은 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7장에서는 내소사(來蘇寺)가 ‘소(蘇) 지역에서 온(來) 절(寺)’이라는 뜻으로 해양계 사찰로 봤다. 내소사 대응보전의 벽면에 바닷가에 솟아난 암반에 앉아 있는 커다란 백의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으며, 저자는 중국 보타낙가산을 중심으로 절강성 일대 해양계 사찰에 그려진 백의관음보살도와 동일한 계통으로 보고 있다. 선운사 대응보전 벽화에도 백의관음보살좌상이 그려져 있다. 항주만에서 한반도로 오는 해상(海商)들은 관세음보살을 신봉하여 관음상을 신고 왔을 수도 있다. 신라상인들이 배에 관음상을 실고 출발하였다가 암초에 걸려 내려놓았다는 기록도 있다. 저자는 수성당이나 고군산도 여러 당집의 여신들도 한반도에서 동남아로 이어지는 해양관음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장은 부안의 돌집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돌집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이 부안이며 이는 해양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안읍이 마치 바다 위의 외딴 섬과 같아 행주형지세(行舟形地勢)로 보고 특히 17-18세기에 해일이 자주 발생해 이를 방어하는 상징으로 돌돛대와 돌집대를 조성한 것이라고 봤다. 동, 서, 남의 3개의 돌집대를 세워놓은 것은 만다라의 연지(蓮池)에 서식하는 천조(天鳥)를 상징하여 부안읍이 불교적

인 이상향의 세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를 주민들이 미륵불국정도(彌勒佛國淨土)의 세계로 실현되기를 염원하면서 만든 풍수비보석조물로 저지는 보고 있다. 집대를 시대적 상황과 부안읍의 환경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집대에 대한 여러 차원의 심층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깊이 느끼게 해주는 글이다.

책 전체가 고창과 부안의 여러 문화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내용과 생각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가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되었고, 외부(특히 이곳에서는 주산군도 보타산의 해양신앙)와의 다양한 맥락이 스며들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전북의 문화가 세계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심오한 사상들과 연계 되어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상상을 하도록 자극하여 상상의 나래가 끊이지 않았다.

1장의 고창 고인돌에 대한 글은 고인돌에 대한 세계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고창의 고인돌의 의미와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채로 고인돌, 벼농사, 조상숭배를 동남아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죽막동의 해양신화가 남중국의 해양관음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어 죽막동의 제사유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인근에서 찾아낸 400년대 후반의 전방후원분 그리고 마한과 백제의 상호작용은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장에서의 동진강 수로와 해양교통로의 해석과 설명도 매우 독창적이고 과감하여 매우 재미있었다. 이 부분에서도 근거들을 더 자세히 제시해주었으면 저자의 역사 해석을 더 수궁할 수 있었을 것이다. 4장도 자연과 전설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을 매개로 매우 재미있게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5장에서 줄포만이 후백제의 해상교류와 관련하여 가졌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후백제가 만경강 항구도 국제항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후백제의 해양교류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6장의 돌배를 관음신상과 연관하여 해석한 과정은 매우 독창적이며 또한 한국과 남중국과의 빈번한 해양교류에서 전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서해의 해안을 따라 가다 흑산도를 거쳐 절강성 Ningpo(주산군도 보타도)로 이어지는 항로가 고대로부터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2, 6, 7장의 내용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7장의 내소사와 선운사의 벽화에 그려진 관음보살이 남중국 보타도의 관음신앙과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고군산군도의 여신들과의 연관성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어로, 어구, 관습, 해양신앙

등에서도 많은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장에서도 부안의 돌집대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미륵불국정도의 이상향에 대한 신앙이나 16~17세기의 해일에 대한 주장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책은 학술서보다 대중서에 가까운 책이다. 따라서 학술적인 논증보다 독자에게 다양한 상상과 자극을 제공하는 측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부안과 고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이만큼 다양한 상상과 자극을 주는 책도 없다. 그러나 학자로서 이 책을 읽다보니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많았다. 좀 더 꼼꼼하게 근거를 제시하면 학술적으로도 훨씬 좋은 책이 될 것이다.